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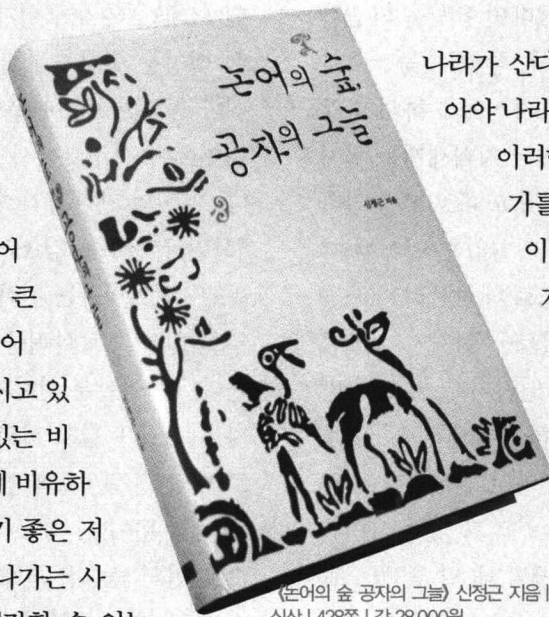
신정근의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고정된 틀 벗어난 한국적 철학하기 독자를 배려하는 편집 아쉬워

글_ 이현구한국철학사상연구회 전임연구원

공자에 대한 평가는 극단적인 입장들이 공존하여 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자가 살았던 시대부터 2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유사하게 진행되었다. 언변이 뛰어나고 경제적 수완이 있어 당대의 큰 부자였던 자공은 공자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왜 공자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느냐는 질문을 한 사람에게 재미있는 비유를 들려주었다. 자공 자신은 집에 비유하면 정원이 넓고 건물이 많으며 보기 좋은 저택으로 담장이 사람 키만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이 잘 사는 집이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집이라면, 공자는 담장이 아주 높은 집이라 그 문으로 들어가서 구경하지 못한 사람은 안에 얼마나 으리으리한 저택이 있고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지 알 수 없는 대저택과 같다고 설명한 것이다. 경제적으로 큰 부자이면서 학식과 교양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존경받던 인물 자공을 공자보다 높게 평가한 당시의 어떤 사람과 스승 공자를 하늘과 같은 인물로 평가한 자공, 이 두 사람의 시각차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재미가 있다. 또 공자학과 입장을 달리한 제자백가의 다른 학파들에서 본 공자의 모습은 성인으로 생각하는 공자 제자들의 시각과는 사뭇 다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공자처럼 극단적인 추앙과 비판을 받은 인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동중서는 한나라 무제에게 제자백가의 다양한 사상들은 혼란만 일으킬 뿐이므로 공자의 유학을 유일하게 장려할 것을 건의하였다. 문화대혁명 기간에 현대 중국에서는 '비림비공' 운동이 일어나 임표라는 정치인의 숙청 작업에 공자도 함께 비판을 받아야 했다. 20세기 말에 한국에서는 《공자가 죽어야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 신정근 지음 | 삼산 | 428쪽 | 값 28,000원

나라가 산다》는 책이 나오고, 이어 《공자가 살아야 나라가 산다》는 책도 나왔다.

이러한 상황은 공자가 그렇게 다양한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라기보다 뒷사람들이 공자를 어떻게 받아들였느냐의 차이 때문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다만 공자는 뒷사람들이 오랜 시간을 지난 지금까지도 거듭 토론해야 할 대상임을 보여준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그런데 어찌면 이 문제는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21세기의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일 수도

있다. 2000년 무렵에 한 연구재단에서 설문 조사한 내용은 이 주제와 관련해서 흥미 있는 자료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젊은 지식인 약 300명씩을 대상으로 전통사상이 21세기의 인류 사회 문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 항목에서 중국과 일본 지식인은 3분의 1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응답했는데, 한국 지식인들은 그 두 배 이상이 전통사상의 미래 사회에 대한 기여가능성을 예상했다. 세 나라의 근대화 과정과 역사 문화 전통의 차이를 다시 생각해 볼만한 결과였다.

신정근 교수의 《논어의 숲 공자의 그늘》(아래에서는 '이 책'으로 약칭)은 공자와 논어를 다각적인 시각에서 다루면서 전통과 현대의 문제, 지성과 실천의 문제, 철학과 현실의 문제들을 진지하게 다루고 있다. 지은이가 이 책을 지으면서 축적한 공부의 깊이와 관심의 초점은 '머리말'을 보아도 그 윤곽을 잡을 수 있도록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다.

“우리는 서양적인 것에 짓눌린 동양적인 것의 복권을

소리 높여 외쳐왔다. 그 속에서 동양적인 모든 것이 동일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지 없는지의 논의는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았다. 서양의 근대 계몽이 순순하지 않는 것으로 고발되는 것만큼 동양의 찬란한 전근대도 폭력적인 것이 들어있다. 우리는 지금까지 중국철학의 성과에 대한 수혜자였다. 이 수혜는 모화(慕華)로만 단정 지을 수 없는 계기가 있다. 민주(民主)의 태생이 한국 또는 차이나가 아니라도 거부할 수 없다면 '중국철학'의 성과도 잉태한 곳이 한국이 아니라고 해서 배척할 수 만은 없다. 왜냐하면 '중국철학'의 성과에는 보편화가 가능한 세계적인(보편적인) 것도 있지만 타자를 왜곡하고 억압하며 절멸시키려는 반인간적인 특성도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공구, 장주, 동중서, 주희, 장즈똥 등의 철학함의 계기를 천착해볼 필요가 있다. 그들의 철학함에는 다른 종족의 침략으로 인한 공동체의 붕괴나 전통문화의 총체와 화해할 수 없는 이질적 문화와의 충돌과 대결했던 흔적이 짙게 배어 있다. 그 흔적은 결코 순수한 보편성만으로 채색되어 있지 않다."

"이제 우리는 중국철학사 또는 서양철학사를 학습할 수는 있지만 그들의 역사적 전통 안에서만 철학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한국의 철학함을 위해 나아가고 아시아성의 발굴을 위해서 나아가야 한다."

이 책에 실린 한 논문에서 인용한 이 대목들에서 지은이의 관심사와 관점을 엿볼 수 있다. 그동안 전통과 현대의 문제를 둘러싼 여러 논의들과 관련하여 지은이가 오랜 탐구와 깊은 사색을 한 자취를 이 책의 곳곳에서 읽을 수 있다. 이 책을 읽다보면 빼곡히 장서가 들어차 있고, 한 주제를 놓고 이런 저런 자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는 학자의 연구실에 들어와 있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이 책에 실린 논문들은 주제가 명확하게 구분되면서도 구성의 형식에서 공통적인 형태가 보이는데, 논문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의 생활 현실의 사건이나 문제들을 끌고 들어가 고전을 다루고 고전과 우리의 삶을 연결지면서 글을 마무리하는 형태의 서술 형식이다. 이것은 지은이가 생각하는 학문과 철학함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느껴진다. 노동 문제, 교육 문제, 이라크 파병, 군사정권, 일본군 중군위안부 문제 등이 고전 속의 윤리, 철학과 연결되고, 고전 속의 다양한 사례 자료를 적절하게 예시하여 학문적 꼼꼼함에 덜 익숙한 독자들도 철학함에 동참할 기회가 늘어날 수 있겠다.

그동안 동양, 동아시아, 우리 전통, 우리 학문에 대한

논의가 쟁점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성과로 나타난 것은 많다고 할 수 없다. 관심 있는 대중 독자들은 좀더 섬세한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 책은 이런 독자들에게 좋은 선물이 될 것 같다. 하지만, 평범한 독자의 입장에서 읽어가다 보면 지은이의 글쓰기 특성과 가끔 눈에 띄는 오자가 결합되어 독해를 방해하는 부분들이 있다. '大同'을 '완전한 통일'로 풀 것처럼 지은이는 중요한 철학 개념들을 절제된 우리말로 풀이하였고 이러한 작업에는 고심의 흔적이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문장이 길어지고 팔호도 많이 쓰게 되었다. 또, 고유명사보다 '그이'와 같은 지시대명사의 사용이 많아 글을 다듬는 사람이 문맥을 놓치기 쉬웠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교정과 윗문 부분에서 빠뜨린 흠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글다듬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면 독해가 훨씬 쉬워질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저자와 편집자가 소홀하지는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오늘도 한문을 배우거나 동아시아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논어》를 들춘다. 그 교재는 거의 대부분 주희가 송제국 이후의 주석을 중심으로 소개한 《논어 집주》가 된다. 왜 그래야만 할까? 주희는 사상이 이전에 뛰어난 언어학자이자 문법학자이므로 그이의 주석을 보면 난해하던 구절이 명쾌하게 풀린다. 그렇지만 《논어 집주》는 주희의 시야로 세계를 구조화시키는 틀을 담고 있다. 그 틀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틀도 있고 주희의 시각으로 볼 수 없는 세계가 이미 부동의 사실로서 존재하고 있다."

이 책의 첫 논문을 매듭짓는 지은이의 이 말은 우리 현실에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 말이다. 고전의 힘은 우리 삶의 근원적인 문제들을 들추어내고 생각하게 만든다. 더 많은 사람들이 고전에 관심을 가지고 수준 높은 식견을 가진다면 우리 사회는 은연중에 한 단계 성숙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고전, 철학서들과 대중들이 친근하게 만나기 위해서는 위에서 지적한 기본적인 윗문과 편집의 문제에 더 많은 공을 들여야 할 것이다. **한글**